



07-45 (통권 172호)
2007.11.9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미국 3/4분기 성장률 3.9%
- 10월 수출 증가세 둔화

경영 노트

- 신성장 동력 창출의 성공 조건

사회 트렌드

- 선거유목민, 포마드
- 카다피의 '이잘라' 리더십

저널 브리프

- 뜨거운 감자, 지구 온난화

洗心錄

- 하버드가 하버드인 이유

□ 미국 3/4분기 성장률 3.9%

- 미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연율로 3.9%(잠정치)에 달하는 호조세를 나타냄
 - 민간 소비가 3.0% 증가하여 전분기의 1.4%를 훨씬 상회하는 가운데 내구재 소비(4.4%)도 전분기의 1.7%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또한 최근의 달러화 약세 기조에 힘입어 수출이 16.2% 늘어나 3/4분기 경제성장률 호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연방정부 지출도 국방비 지출(9.7%) 증가에 기인하여 전기대비 연율로 6.8% 증가하였음
 - 한편 주택부문 고정투자는 20.1% 감소하여 전분기의 11.8% 감소에 비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음
-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5.6을 기록하여 2005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로 향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10월 수출 증가세 둔화

-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분을 반영한 10월 수출 증가율이 美 서브프라임 부실과 유가 급등, 원화 강세 등 대외 요인의 악화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음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4.2% 증가한 347.9억 달러, 수입은 27.2% 증가한 325.9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1.9억 달러 감소한 2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그러나 추석효과를 제외한 9~10월 간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에 그쳐 6~8월의 15.1%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 한편 조업 일수가 반영된 10월 일평균 수출입액도 각각 14.5억 달러(6.1%), 13.6억 달러(8.6%)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신성장 동력 창출의 성공 조건*

- (개요) 필립 코틀러 교수는 중국 등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저가격 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의 방법론에 대해 언급함
 - 코틀러는 미국 노스웨스턴大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석좌교수로 현대 마케팅 이론을 정립한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림
 - 코틀러의 신성장 동력 창출방법은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과 독창성을 개발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으로 요약됨

- (성공 조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한국기업은 브랜드, 성장전략, 혁신과 기업문화의 4가지 차원의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함
 - (브랜드) 모방의 가속화로 인한 차별화의 어려움으로 한국은 값싼 제품들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바. 고품질의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이 필요
 - (성장) 속성 성장을 위해 M&A만 의지할 경우, 기업 생명이 짧은 복합 기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생적인 성장에 주력해야 함
 - (혁신) 제품·서비스·공정·비즈니스모델의 4가지 분야의 혁신 중, 경쟁사의 모방이 어려운 공정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주력해야 함
 - (기업문화) 애플 아이팟과 같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문화가 요구되며, 맥도널드와 같이 소비자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객 비판을 수용하는 기업문화 조성이 필요함

- (시사점) 신성장 동력군 발굴의 초점을 첨단 산업에만 맞추지 말고, 경쟁력을 쌓아온 기존 사업에서의 차별성 발굴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흔히 신성장 동력이라면 에너지, 환경, 건강 등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은 반면, 기존 사업군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 커피의 스타벅스나 패스트푸드의 맥도널드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 사업군에서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성을 찾아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이 글은 조선일보(2007. 10.12)에 게재된 “한국기업들 살고 싶다면...엔진을 이렇게 바꿔라”를 요약·재구성한 것임

□ 선거유목민, 포마드

- 포마드(POMAD, plitical-nomad)란 마음과 거처를 정했다가도 인물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이민’을 감행하는 유권자층으로서 ‘선거유목민’을 말함
 - 이들은 ‘부동층’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어느 누구에도 마음을 주지 못한 일반적 의미의 ‘부동층’과는 달리, 마음을 줬다가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음
 - 인물 구도의 변화와 이합집산의 정치공학으로 대변되는 2007년 대선 현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선거유목민, 포마드의 규모는 20% 안팎으로 추정됨
 - 선거유목민을 대하는 대선주자들의 태도도 일반적인 부동층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함
 - 순수 부동층은 심사숙고 끝에 막판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얻기 어렵지만, 선거유목민은 큰 변수에 따라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을 통해 내편을 만들기 쉽다고 함

□ 카다피의 ‘이잘라’ 리더십

- 리비아의 최고지도자인 무아마르 카다피는 최근 국민들에게 ‘철저히 파괴하라’란 뜻의 ‘이잘라’(izala) 라는 화두를 자주 던짐
 - 현대적인 국가로 변신하기 위해선 낡은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카다피의 지시로서, 현재 리비아는 파괴와 건설이 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카다피는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단체 지원을 포기하고 서방 선진국들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낸 뒤 풍부한 오일 머니를 이용해 ‘국가 개조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음
 - 고립주의를 벗어난 이후 경제성장률은 2002년 1.4%에서 2005년 6.3%, 올해와 내년엔 7.9%, 8.1%로 뛰어올랐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2년 3,593달러에서 올해는 1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뜨거운 감자, 지구 온난화*

- (지구 온난화의 경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지구의 온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동식물의 대규모 멸종 및 자연재해의 급증을 야기할 것임
 - 미국의 전 부통령인 앨 고어는 지구 온난화의 경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
 - UN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상 동식물의 20~30%가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열대 지방의 풍토병인 말라리아와 뇌염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며, 자연재해 역시 급증할 것임
 -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이며,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1990년 수준보다 5.2% 줄이기로 함

- (지구 온난화는 착각) 지구 온난화의 경고는 과장되었으며, 교토의정서를 통해 맺어진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UC산타바바라 대학의 대니얼 보트킨 교수에 따르면 지난 250만 년 동안 지금보다 더 심한 온난화 기간을 거쳤지만 멸종된 생물은 20여 종에 불과함
 - 영국 옥스퍼드 대학 사라 랜들프 교수에 따르면 기온의 변화와 열대 전염병 사이엔 상관관계가 없음
 - 또한 지구 평균 온도가 2.6도 오르는 시점은 교토의정서가 철저히 지켜질 경우 2100년이며, 교토의정서의 이행이 없더라도 2105년임
 - 이처럼 지구 온난화 논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감만을 조성하고 있음

- (시사점) 지구 온난화의 경고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지라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는 바,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 글은 『Business』 (2007.11.12)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하버드가 하버드인 이유

2000년대 들어와 미국을 여행해본 사람이면 미국사회에 대해 별로 놀랄 것이 없다는 데 대해 놀랄지도 모른다. 거의 모든 가정마다 들어가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은 말할 것도 없고 무선 인터넷에 DMB까지 그야말로 첨단 정보통신서비스와 시설로 짝 차 있는 우리 나라와 달리 미국은 언뜻 보면 과거의 영화만을 간직한 채 쇠락해 가는 느낌마저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 캠퍼스에도 해당한다.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로 무장한 새로운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데도 모자라 화려한 상가로 개발된 지하공간을 갖추고 각 강의실마다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의 일부 대학들은 사실 시설 면에서 비교를 불허한다.

근래 하버드 대학교를 관광차 방문한 사람들도 열 명 중 아홉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평지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저 평범해 보이는 캠퍼스는 사실 특별히 기억에 남아둘 것이 없을 정도다. 솔직히 웅장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신축 캠퍼스에 비해 조화로우면서도 크게 떨어진다.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고 강의실 또한 최첨단에서부터 우리의 옛 강의실 정도의 시설을 갖춘 것까지 다양하다.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MIT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상징이 되어버린 본관 건물은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세월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엘리베이터 내 상냥한 여성의 안내 방송도 없다. 건물을 이어서 짓다보니 동선 또한 엉망이고 자칫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하버드와 MIT 아니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니다 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식은 캠퍼스, 강의실, 기자재 등의 시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설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빠르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 역시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이들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한 해답은 하버드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하버드는 거의 전 학과에 걸쳐 세계 최고의 학자들과 이들에게 배우려는 가장 총명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 물론 이는 일종의 복잡계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 좋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훌륭한 새로운 선생님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진리 탐구에 대한 열의에 가득 찬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드는 일종의 선순환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훌륭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칼 포퍼의 말을 인용한다면 추측과 논박이 가능한 환경인 것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또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 간에 끊임없는 추측과 논박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미국의 대학교들이고 그 정점에 하버드가 있다고 한다면 과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지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설이 한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그리스의 돌 의자에 앉아서도 위대한 철학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1600년대의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첨단시설이 있어서 뉴턴을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을 쓰면서 근무했던 대학교는 당시 프러시아의 왕이 한심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특허청에 근무하면서 상대성이론에 관한 논문을 완성시켰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만나 자유롭게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지식사회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 방법은 의외로 새로운 것에 있지 않다. 적절한 인재와 생각을 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는 자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오늘의 하버드는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일생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데카르트(1596~1650) : 프랑스의 철학자